

삼성전자,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돕는다

쌍촌동에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연 360여명에 주거공간·교육 등 제공 생활비·장학금 등 금융지원도 연계

삼성전자가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를 2일 개소했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등 보호체제 아래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사회 첫 걸음을 내딛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거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광주센터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27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비롯해 교육과 상담을 위한 공간, 북카페, 운동시설 등을 갖췄다. 연인원 360여명의 청소년들이 자립체험과 각종 교육에 참여할 예정으로, 운영은 광주아동복지협회가 맡기로 했다.

보호체제에서 지내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경우 혼자 경제와 주거, 진로, 취업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등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주거는 물론, 요리와 청소, 정리수납 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자산관리, 임대차 계약 등 기초 경제교육도 제공한다. 이밖에 취업정보·진로상담·인턴기회와 대



삼성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병훈·양형자 국회의원,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사장 등 관계자들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학생의 경우 생활비, 장학금 등 금융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 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임직원들의 기부금 250억원을 토대로 2016년 부산과 대구, 2017년 원주센터가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연인원 8494명의 청소년이 자립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추가해 내년까지 목표와 순천, 전주, 진주, 창원 등 9개 센터를 추가 개소해 총 13개의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현용 광주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임 센터장 취임



조현용(앞줄 왼쪽 세번째)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센터 신임 센터장이 2일 취임했다.

조 센터장은 1994년 SBS서울방송을 거쳐 2016년까지 KBC광주방송에서 기술국장, 경영지원본부장, 편집제작국장, 평생교육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KBC플러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조 센터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센터가 지역사회에서 14년간 이어온 성과를 이어 시청자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광주센터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산림조합 전남도지회, 시각장애인선교회에 성금 전달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본부장 손철호)가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를 찾아 돼지저금통과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산림조합은 매년 전남산림조합 중앙회 22개 사무실 등에 돼지저금통을 비치하고 모금된 성금을 시각장애인선교회에 전달하고 있다.

<산림조합전남지회 제공>



광주본부세관, '5월 으뜸 세관인'에 우덕균 광양세관 행정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근)은 지난 1일 광양세관 우덕균(사진 오른쪽) 관세행정관을 '5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우덕균 행정관은 감시 사각지대 개선으로 광양항을 통한 안보위해 물품 밀반입 사전차단에 기여하는 등 서남해안 감시체계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광양항 부두별로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출입

통도를 지정·공고하고, 관련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배에서 내리는 하선 선원들의 휴대품에 관한 부작 등 효율적인 검사체제도 마련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매달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불빨간 선선놀음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다큐 인사이트(재)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UHD 숨터	00 대박부동산(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2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행복설계 알짜배기
[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달남이			
[3]	00 마법소년 디디 2 15 출동! 유혹구조대 2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보토스 패밀리(재)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박미선과 돈우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픽스페셜(재)	00 몬스터 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특집 내 고향 전파 영암편(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생방송 영남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대박부동산	20 목표가 생겼다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대화의 희열 3	30 광주MBC 다큐플러스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55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통합뉴스룸 (재)	50 2021 지구촌 어린이들기 희망더하기 스페셜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위 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05:5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로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EBS 부모(재)	19:05 포텐독
07:15 티시테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를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5:05 지식채널e(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00 당동명 유치원	15:15 클래스 e	<동남아 힐링 트림 -화산 마을 다이어리, 인도네시아>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여진 물랐지>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재)	21:50 파란만장
09:00 시뮬	16:00 페파 피그	22:45 사운드 스토리 너의 소리가 보여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3:35 클래스 e
09:30 물방	16:30 당동명 유치원	23:55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몬데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일(음 4월 23일 壬午)

<p>36년생 반쪽 되면서 설 틈을 주지 않는다. 48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성사 된다. 60년생 급한 것부터 조처되었을 때 실리를 도모 할 수 있다. 72년생 조급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84년생 기대 해왔던 바가 돌변할 수도 있는 도랑이다. 96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83</p>	<p>42년생 조금씩 하지 않는다면 김운을 맞으리라. 54년생 앞면서도 빠뜨릴 가능성이 높으니 잘 살펴봐야 하느니라. 66년생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78년생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 되어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90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레마에 빠져들 수도 있다. 02년생 희망찬 미래를 기약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7, 69</p>
<p>37년생 보지만 말고 직접 해야 하느니라. 49년생 변화를 꾀한다면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61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 되리라. 73년생 대중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85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97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1, 65</p>	<p>43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55년생 때를 맞추어 제대로 효과를 본다. 67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79년생 급격히 나서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냄이 백 번 나은 것이다. 91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03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48, 96</p>
<p>38년생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무리가 없다. 50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62년생 험하게 도약해야 할 때다. 74년생 구태연함에서 벗어나 창의적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98년생 오래 가지 못할 수다. 행운의 숫자 : 84, 58</p>	<p>32년생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낫다. 44년생 성과를 확인한다면 당장 실행해도 된다. 56년생 상대의 언행에서 충분히 나타내게 되어 있다. 68년생 예상치 보다는 못 미치나 도운은 될 것이다. 80년생 파생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교두보가 되겠다. 92년생 계획하여 왔던 바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7, 89</p>
<p>39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도량을 구축한다. 51년생 한 번 농진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63년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75년생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함이 정확할 것이다. 87년생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니 처세에 신경을 써라. 99년생 완급과 정도를 조절하자. 행운의 숫자 : 19, 97</p>	<p>33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45년생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 비비는 법이다. 57년생 실제 내용을 확인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69년생 단순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정점도 있다. 81년생 파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싹트리라. 93년생 김새를 무시하지 말고 저변을 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48, 62</p>
<p>40년생 희망을 잃지 말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자. 52년생 형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용이하다. 64년생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금전운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76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뤄야 큰 것을 얻는다. 88년생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00년생 협력자를 자처하는 이를 주목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1, 95</p>	<p>34년생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46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58년생 서둘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0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만 유지된다. 82년생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어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94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차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37, 50</p>
<p>41년생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53년생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이 나는 이치로다. 65년생 뜻 밖에 나타난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77년생 절대적이라고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89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01년생 오매불망해오던 것이 소기의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 한다. 행운의 숫자 : 01, 92</p>	<p>35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자. 47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59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71년생 부담스럽다면 체면 불구하고 피하는 것이 낫겠다. 83년생 활동만 잘 한다면 대박이 날 수 있다. 95년생 순조로운 과정에서 소폭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6, 76</p>